양자역학, 불교에게 길을 묻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

김성구 지음/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합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시간마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밝혀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을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했다. 또한,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종교가 과학과 짝을 이루려면 그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영감을 주는 종교를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라고 명명했다. 우주적 종교란 '우주 종교적 감정(cosmic religious feeling)'에 바탕을 둔 종교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감정'을 말한다. 그릇된 욕망과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감정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말한 우주적 종교에 가장 근접한 종교로 불교를 꼽았다.

현대물리학이 규명하려는 세계관과 불교의 가르침서 많은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물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는 이 같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검증함과 동시에 최신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접점을 탐구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명예교수는 왜 불교가 우주적 종교일 수밖에 없는지를 해박한 물리학 지식과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했다. 물리학의 최전선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불교의 연기(緣起), 공(空), 일심(一心)사상으로 물리학 이론을 비춰본다. 고전물리학에서 현대물리학에 걸친 물리학 역사와 불교 교리의 개론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와 과학에 대한 통념을 단숨에 변화시켜 준다. 물리학 박사이면서, 오랜 세월 불교학에 천착해 온 저자의 깊은 통찰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적 영감을 불어넣는다.

물리학의 역사는 크게 뉴턴을 중심으로 한 고전물리학과 20세기 이후 등장한 상대성이론 및 양자역학을 다루는 현대물리학으로 나뉜다. 고전물리학의 세계서 과학 지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격을 띠었다. 인간이 발견한 자연법칙은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케 해주었고,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한번 발견한 물리법칙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불변의 진리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존의 고전물리학 법칙들을 뒤집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성립하면서 과학은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식의 모임'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고전물리학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의 발견으로 진리라 믿던 법칙이 무너지자 과학적 지식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물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것으로 다시 재정립되었다. 이런 변화의 문을 활짝 연 인물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로 그동안 파동이라 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지닌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뉴턴조차 몰랐던 새로운 물리학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이다. 입자는 아주 작은 독립된 개체의 단위이다. 하지만 파동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파동이 생기려면 매개체가 필요한데, 물과 물결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물이 매개체이고 물결이 파동이다. 그런데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이기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현상을 토대로 성립한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은 입자 단위의 작은 미시 세계 속에서 일어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양극단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 세계 중 하나이다. 마치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있음과 없음이 서로 얽혀 있는 미지의 세상과도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불교의 '연기(緣起) 공(空)사상'과 많은 점이 유사하다. 연기법이란 '세상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며, 실체가 있는 고정불변의 존재는 없다'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만물의 실체없음'을 불교에서는 공성(空性)이라고 말한다. 최첨단 물리학 이론이 2,500여 년 전 탄생한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서양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불교에 관심 갖게 된 이유이다.

저자인 김성구 박사는 이점이 바로 불교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가 되는 증거라고 말한다. 많은 난제로 가로막혀 있는 양자역학의 매듭을 푸는 데 불교의 연기법과 공사상이 물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실체

아인슈타인 주장 검증 및 현대물리학과 불교 접점 탐구

불교의 연기, 공, 일심사상으로 물리학 이론을 비춰봐

없음'을 이해하는 데 불교는 분명 큰 도움이 된다. 빛이 실체가 있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실체가 없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물리학자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마치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과 맞닥뜨린 느낌이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존재-비존재, 삶-죽음과 같은 양극단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분별심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알려주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바로 이 부분이 양자역학이 연구하는 미시세계의 개념과 합치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양자역학은 불교의 공과 중도의 물리학이라고 주장한다. 양자역학에서 물질계의 모습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이 불교에서 일반 사물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과 무척 비슷하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은 양극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시세계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어려운 과학용어로 설명하자면 '불확정성원리'의 세계이며, '이중성(duality)'의 세계이다. 이러한 현상을 과학자들은 '허깨비(ghost)'라고도 부른다. 모든 사물에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인 불교의 공성(空性)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허깨비와 같은 미시세계가 모여 우리가 인식하는 거시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물건에 집착하고, 네 것 내 것을 구분한다.

저자는 양자역학의 이론을 제시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허깨비'의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독자들을 인도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연기 · 공사상과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에서는 불교와 현대물리학이 한 쌍의 조화를 이루는 수레바퀴임을 밝히고, 불교가 우주적 종교이자 미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부처님 말씀 빌린 '妄說'

〈망설〉



니 혼자 부처되면 뭐하노

월암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7천원

"괴로움과 즐거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지나가는 구름에 손만 흔들어라"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는 스님이 출가해 지금까지, 강산이 다섯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상좌들과 불자들께 보낸 편지, 엽서, 문자 등을 모아 엮은 책이다. 주로 성현들의 말씀에 사족을 붙인 내용과 직접 쓴 글 모음집이다. 그동안 간화선의 대가로서, 학술서 위주의 책을 내온 월암 스님의 첫 에세이집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은 이 책을 '망상집'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조의 언설과 고덕의 행실이 그 속에 녹아 있기에 눈과 귀에 스치는 인연만으로도 불법의 종자를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책머리서 밝힌다. 부제인 '금구망설'이란 불조의 금구성언(金口聖言), 즉 '부처님의 말씀을 빌린 망설(妄說)'이라는 스님의 겸손한 표현이다. 부제대로,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과 거기에 붙인 스님의 사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엽서처럼 짤막한 글귀 안에 무릎을 치게 하는 단박의 깨달음이 들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사(古事)와 고시 인용, 스님이 직접 지은 한시와 우리말 시가 어우러져,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선수행자만의 담백한 정신을 맛볼 수 있다. 출가한 지 50년 된 노승에게 하시는 어머니 말씀.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스님은 자신을 산승이라고 표현하며, 사람관계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때로는 산문처럼 풀어내고, 때로는 시처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하지만 곱씹고 싶어지는 문장도 섞여 있다. 먼저, 책의 표제가 왜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인지를 알려주는 1번 꼭지〈모정단절〉에서는 스님 자신의 사연이 드러난다. 자식이 출가한 지 50여 년이 되었는데도 가끔 전화를 걸어와 "한 중생도 제도 못 하면서 무슨 만중생을 제도할 끼고. 한 중생 다 죽고 난 뒤에 제도해라"라는 어머니. 글에는 여전히 자식을 놓지 못하는 모정에 대한 애틋하면서도 묘한 심경이 담겨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좌절과 절망에도 담담히 일어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개망초〉 그리고 "눈썹에 허공 하나 매달고 그냥 살다 그냥 간다"는 〈복수초〉는 각기 한 편의 시다. 이처럼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는 선수행자만의 시각과 깨달음의 정수를 다양한 갈래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에세이이다. 김주일 기자

〈증도가〉 대표적 주석서 4권 모아 번역



증도가 합주

남명 법천 외 지음
철우 역주
운주사 펴냄
2만 5천원

〈증도가〉는 영가현각 대사의 깨달음의 경계를 운문 형식으로 노래한 책이다. 현각 대사는 육조 혜능 선사를 참알한 인연으로 '일숙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더욱이 혜능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아 〈증도가〉를 찬술했다고 한다. 특히 이 책은 서역으로 전해져 유행하면서 이른바 〈증도경〉 〈동토대승경〉으로도 칭송됐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증도가〉는 조사선의 종전으로 추앙받는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후기 조사선에서 출현한 대부분의 선적에 〈증도가〉가 인용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도가〉는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승찬의 〈신심명〉과 함께 선가에서 널리 읽히는 대표적인 선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증도가〉는 역대로 수많은 고승대덕들에 의해 주석서가 쓰였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해설서와 번역서들이 출판된다. 본서는 선가에서 이렇듯 중요시되는 〈증도가〉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 4가지를 한 권에 모아 전체를 번역하고 주석한 책이다.

〈증도가〉에 대한 대표적인 4종의 주석서로는 송대 묘공지눌과 범천언기의 〈증도가주〉, 남명법천의 〈증도가송〉, 원대 축원영성의 〈증도가주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범천언기와 남명법천의 주석서는 이미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됐지만, 묘공지눌의 〈증도가주〉와 축원영성의 〈증도가주송〉은 이번에 처음 우리말로 번역 소개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들 4종의 주석서를 모두 완역하여 원문과 함께 실음으로써 〈증도가〉가 각각의 선사들에 의해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4종의 주석들은 〈증도가〉가 본래 지니는 사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이들 주석들을 서로 비교하며 읽는다면 〈증도가〉가 지닌 선사상, 나아가 저자 현각의 사상을 한층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본서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본문 말미에 부록으로 '〈증도가〉의 선사상'이란 이름으로 영가 현각의 생애와 저술, 그리고 〈증도가〉의 선사상을 소개한다는 점이다. 특히 광범위한 〈증도가〉의 선사상 가운데서도 핵심인 주제들을 모아 '불성과 돈오', '수증론', 그리고 구도의 길에 있어서의 '경계와 질책'으로 요약 정리해 체계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증도가〉의 내용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증도가〉는 영가현각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시의 형식으로 노래한 것으로, 상당히 압축적이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원문 자체로만 봐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다양한 자의적인 해석들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대 고승들의 안목과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